

제18회

한국여성대회

일시 2002년 3월 10일(일) 12시~3시 30분 장소 대학로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02-2273-9535)

■ 주관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8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지역여성연합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연합 회원단체 :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한노인회, 부산성북여성동맹,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마을운동여성위원회, 서울여성노동조합,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연합회, 제주여성회, 학교육아지원한국학부모회, 충북여성연구소, 평화통일여성회, 모퉁이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조합의회(광주, 마산창원, 부산, 부산, 서울, 인천, 인천, 천안, 한국여성민우회, 고양, 광주, 군포, 김포, 서울남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양주, 인천, 전주, 춘천,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문화연구원(서울, 김포,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강릉, 강릉, 평택, 성남, 수원, 서울, 안양, 김해, 창원, 군산, 영광, 익산, 전주, 천안, 청주, 부천, 진해, 김포, 목포) 한국여성문화연구원(부산, 대구, 광주, 천안, 충북, 서울영천, 경남진주, 인천진주, 충남진주, 사립진주여성회, 농어촌여성회, 빚집을여는사람들, 한국여성복지자립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여성·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도시농업포럼, 노년여성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말사망아빠(비디오), 문화개혁시민연대, 매대추근황을위한한소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YMCA, 신나는문화공동체자랑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인종예술인총연합회, 한민족문화해방위원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 기획 : 예술집단 오름 ■ 후원 : 서울특별시, KBS, 안거레, 한국여성신문사 ■ 협찬 : OHL

보험으로 주방을 바꾸다나...



삼성화재 창립 50주년 기념 신상품

무배당 주부센스 리모델링 보험

머리핀 하나에도 귀한 돈 안 쓰는 알뜰한 그녀, 과감하게 주방을 바꾼 비결은? 바로 주부센스 리모델링보험-
이제 폭돈에 대한 부담없이 주방가구를 바꾸세요. 보험에 가입하시면 환급금 대신 저렴하게 주방을 바꿔 드립니다.
경제적인 당신의 선택, 주부센스 리모델링보험에 지금 가입하세요.

AMORE PACIFIC

우리나라 해남의 쪽빛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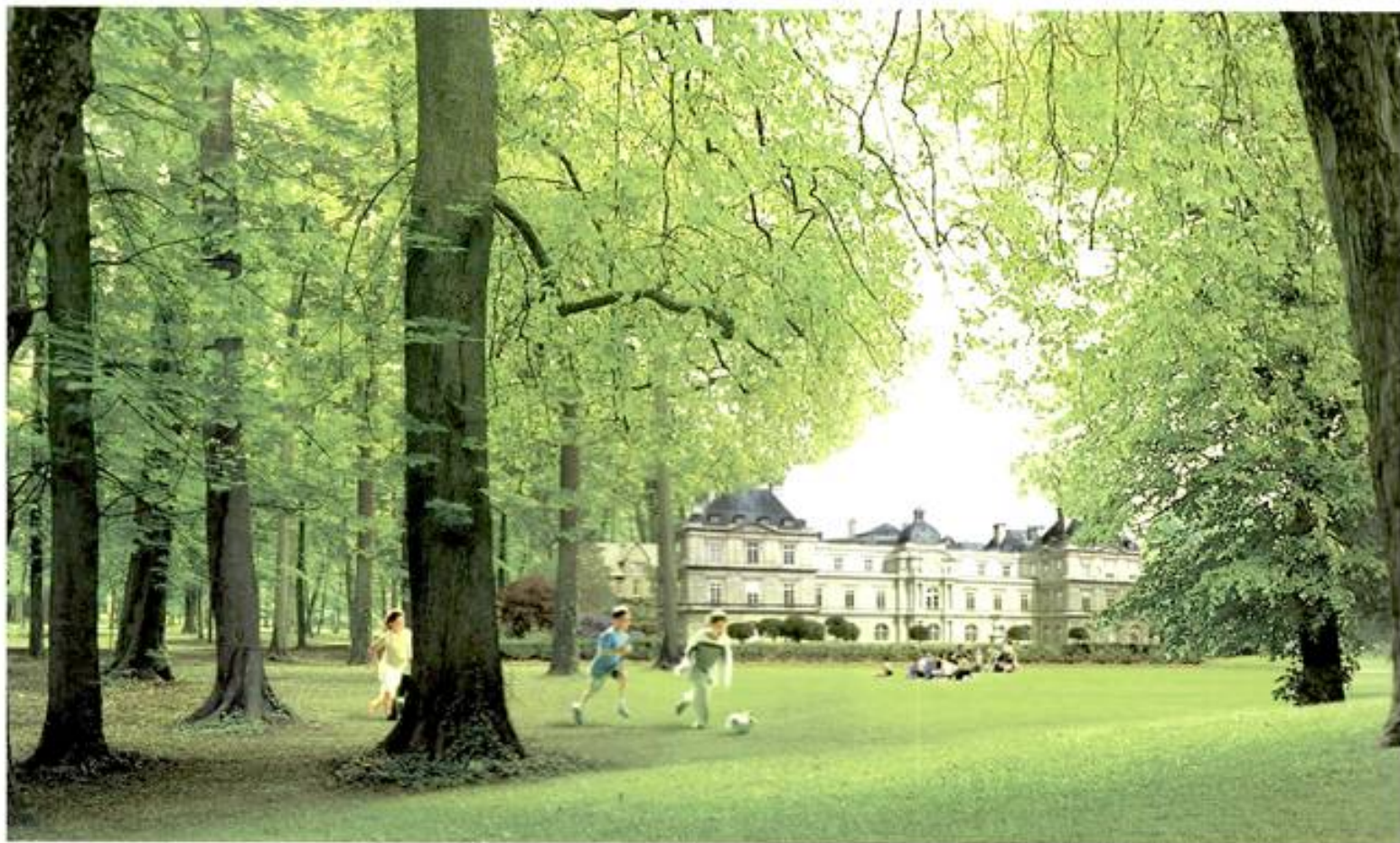
너는 해를 낳았으니
해를 쫓아 세계로 가라!

자연이 우리에게만 허락한,
세상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쪽빛-
그 아름다운 유산과 정신을
가슴에 안고 태평양이 거듭납니다.
태평양이 세계로 나아가는 아름다자
자신있게 세계에 내놓는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이는 최고의 원료와 과학으로 빛은 우리 화장문화,
우리 아름다움의 결정체입니다.

dream of beauty AMORE PACIFIC

기증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힘- 그 시작은 학교 숲에 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 같은 자연친화국의 학교엔 학교와 사회를 단절시키는 벽이 없습니다. 학교는 낮은 담장이나 푸른 숲에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잘 가려진 학교 숲은 아이들의 '자연체험공간'인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열린 공간'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며 밝게 크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선진국 국민들의 남다른 여유와 행복을 봅니다. 실제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 학교에 숲을 키운 후 지역 주민들의 교류나 단합이 보다 활발해지고 학교 내 문제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 학교 숲은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서울 시내에만 1200여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의 넓이는 약 800만평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습은 선진국 아이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자연과의 교감

이 중요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숲과 새 대신 높다란 담장과 흙먼지 날리는 덩그런 운동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미래가 있으려면 먼저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부터 정성 들여 가꿔야 합니다. 학교와 사회를 단절시키던 담장을, 선진국처럼 생울타리나 나무숲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선진국의 아이들처럼, 이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릴 때 체험은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학교 숲은 아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열린 사회와 나눔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일생을 가는 아름다운 꿈과 건강한 미래를 열어줍니다. 학교 숲을 가꾸는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열림과 나눔의 큰 의미를 가르치는 숲- 도시와 학교에 숲을 키우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 목차 contents

- 06 시민난장
- 08 2002 3·8 세계여성의날 여성선언
- 10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소개
- 12 올해의 여성권익 디딤돌 & 결림돌
- 14 출연진 소개 / 함께하는 사람들
- 16 여성노래 / 내사랑 여성연합
- 17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 특별 결의문
- 18 참가단체 / 준비위원회 참가단체 연락처

■ 프로그램 Program

- 시민난장 (11:00~5:00 / 대학로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이화동네거리)
- 본무대 (12:00~2:00)
 - ▶ 여성의날 축하 식전행사 "기억하라! 여성의날, 새땅 새하늘 열리는 날" (12:00~1:00 / 사회:최광기)
 - 여성노래 배우기 : 예술집단 '오름'
 - 여성노동자들의 태평가 노가바 공연 : 전국여성노조 '경북대 미화원 분회'
 - 댄스공연 '파란' : 부산성폭력상담소 '우파워'
 - 차별을 뛰어넘는 어린이 음악줄넘기 : 김수열 줄넘기아카데미 '음악줄넘기시범단'
 - 경계를 넘자, 여학생 축구소 : 안양부흥중학교 '여학생축구단'
 - 내일을 여는 청소년 힙합천국 : 여학생댄스그룹 '핑키'
 - 신나는 몸짓, 엄마들의 댄스스포츠 : 라틴댄스 주부동아리 '웃음으로'
 - 문선 공연 : 대전여민회 '말·달·여'
 - ▶ 기념식 (1:00~2:00 / 사회 : 최광기, 권혜효)
 - 개막공연 "축하해요 3·8 세계여성의날" : 예술집단 '오름'
 - 참가단체 기수입장 및 환영인사 : 단체기수, 여성연합 이강실 공동대표
 - 2002년 여성선언 : 여성연합 이오경숙 상임대표
 - 축사 : 여성부 한명숙 장관
 - 보육의 현실을 말한다 : 한국보육교사회
 - "호주제를 폐지하라" 노래공연 : 예술집단 '오름'
 - 올해의여성운동상 시상식 : 태대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여성연합 정현백 공동대표
 - 축하공연 : 가수 안혜경의 '사랑하는 언니에게'

■ 거리퍼레이드 (2:00~3:30 / 대학로~종묘공원)

- 1000인의 체험 퍼포먼스 '성차별타령 통과하기' (이화동네거리)
- 60인의 표현 퍼포먼스 '해방향해 함께 달리기' (종로5가네거리)
- 1000인의 창작 퍼포먼스 '평화의 피아니' (종묘공원)



시민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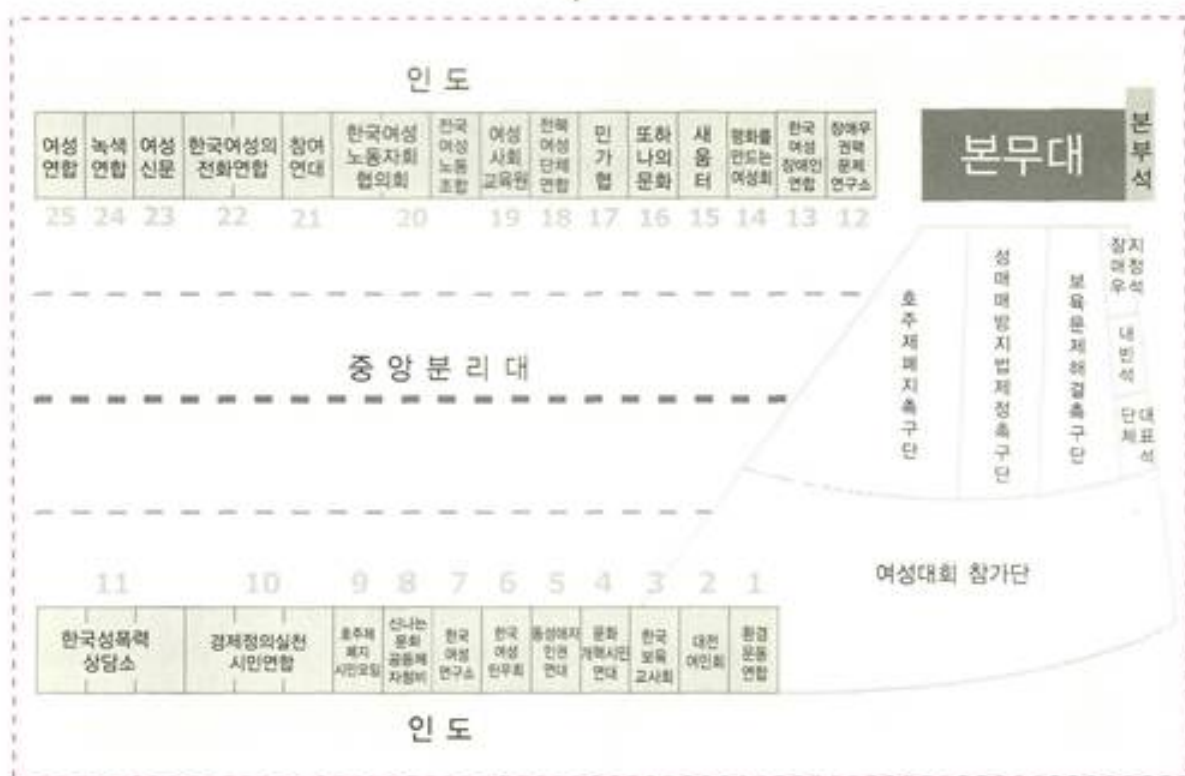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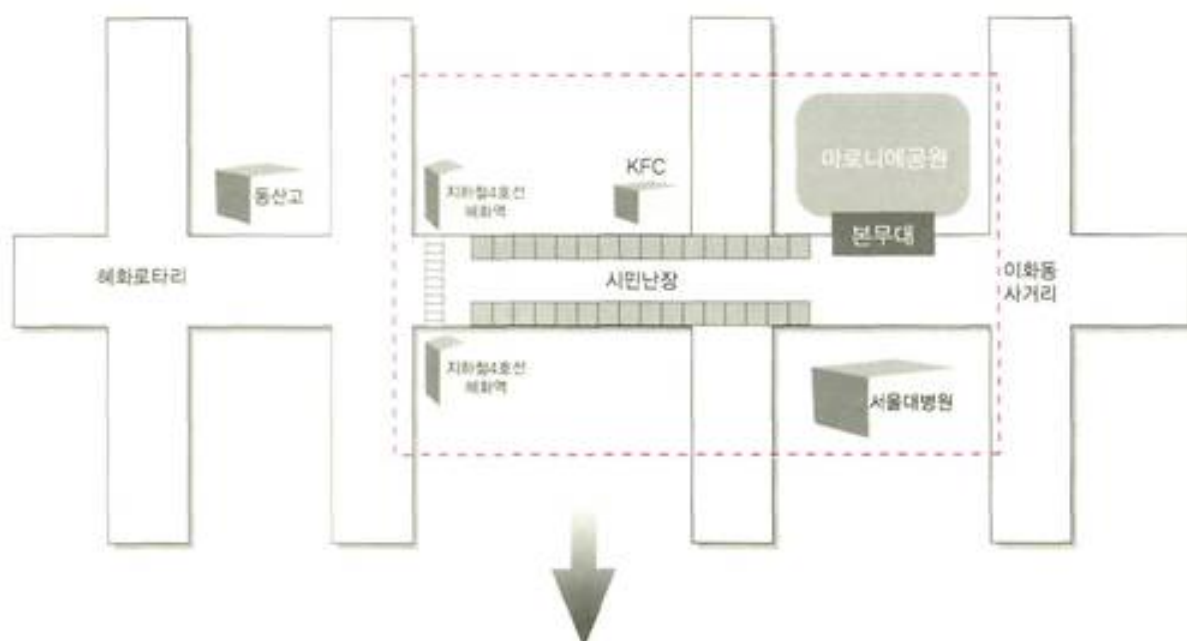
■ 종로방면을 바라보고 오른쪽

- 장바구니 전시, GMO반대전시, TAKE OUT 반대 캠페인, 폐형광등 분리수거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1
- 시민과 함께 걸개 그림 그리기 대전여민회 2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 한국보육교사회 3
- 남녀역할 바꾸기, 심리테스트(나는 마초? 페미니스트?), 문화연대 홍보캠페인 문화개혁시민연대 4
-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청소년보호법 박터트리기, 레인보우·레드리본 버튼 판매, 홍보물 배포(드래곤) 동성애자인권연대 5
- 환경·미디어 관련 홍보, 생리주기 팔지 판매, 풍물놀이 한국여성민우회 6
- 자료 전시 및 판매 한국여성연구소 7
- 안혜경 음반 판매 및 콘서트 안내 신나는 문화공동체 자청비 8
- 호주제서명운동, 홍보엽서배포, 선전물 배포, 부모성함깨쓰기 버튼 배포, 마초에게 한다미 게시판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9
- 성차별 철폐 물풍선 터트리기, 캐리커처 그리기, 여성맞춤김밥팔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0
- 성폭력 10대 사건 패널전시, 자료전시 및 판매, 비디오 상영, 네일아트 한국성폭력상담소 11

■ 종로방면을 바라보고 왼쪽

- 재활용사업장에서 장애우가 제작한 의류·신발·문구류·습사탕·커피통 판매, 비디오상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2
- 여성장애우 인권 관련 전시, 장애체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3
- 반전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 전시, 평화영원 이어 그리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4
- 동두천 여성센터에서 제작한 수공예품 판매(압화카드, 핸드폰줄, 열쇠고리 등) 새움터 15
- 자료 전시 및 판매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16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17
- 성매매방지법 제정 서명 캠페인, 군산 개북동 화재참사 사진전 전북여성단체연합 18
- 자료전시 및 판매 여성사회교육원 19
- 여성노동자 100년사 사진전시, 비디오 상영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전국여성노조 20
- 단체소개 홍보물 전시 및 회원가입 캠페인, 서명운동, 수첩·버튼 판매 참여연대 21
- 가정폭력관련 사진전시, 부부재산공동명의 선전물 전시, 애니메이션 상영(도하의꿈), 율놀이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2
- 여성신문 홍보 여성신문 23
- 환경사진 전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소식지 판매 등 녹색연합 24
- 딸사랑비씨카드 및 후원회원 가입캠페인 한국여성단체연합 25

시민난장





2002 3·8 세계여성의날 여성선언

성차별과 가부장적 인습에 당당히 맞서 남녀평등, 참여민주사회를 향해 달려온 여러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18회 한국여성대회에 오신 여러분께 뜨거운 자매애로 인사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온 경험과 차별의 벽을 넘어 온 지혜로 양성평등과 민주주의,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효율과 이윤추구만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논리로 여성들을 일터에서 내몰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제 등 성 차별적인 제도를 통해 가부장적 인습을 온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서 불법감금과 노예매춘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던 여성들이 화재로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기막힌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2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고 남녀가 공존하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다 크고 힘찬 변혁의 걸음을 내딛을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 우월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호주제는 일본 식민지의 잔재이자 UN등 국제사회에서도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법률임을 지적한 바 있는 악법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여성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평등권을 쟁취하고 가족 내 평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호주제폐지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의 사슬을 끊고 성매매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매매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인신매매, 감금, 착취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가장 극악한 범죄임을 알리고, 모든 사회 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성매매 알선고리 차단과 성매매된 여성의 인권보호, 사회복지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우리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통해 출산 및 육아휴직 비용의 사회 분담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여성은 일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아동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육 예산의 확대, 영아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보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오경숙 이강실 정현백



특히 2002년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후보들에게 성 평등정책을 공약으로 요구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한 여성 유권자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지방자치 선거시 30% 여성 공천 할당을 실질화 시켜 여성적 관점으로 지역 정치를 개혁하고 평등한 생활정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단결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을 통해 거대 이윤을 얻고자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고 이 땅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윤추구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유령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일하고 나누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물결을 여성의 힘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제 여성들의 단결된 힘으로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세상을 향해 2002년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의 뜻을 담아 양성평등과 공존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의 여성운동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선언

- 열린사회, 평등가족,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호주제를 폐지하라!
- 성 산업을 규제하고 성매매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라!
-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를 위해 보육의 공공화를 확대하라!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30% 공천할당 실질화로 여성참여 확대하라!
- 여성의 단결과 연대로 한반도 전쟁 책동 막아내자!

2002년 3월 10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8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제14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소개

■ 수상 이유

'매매춘근절을위한한소리회'는 1986년부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멸시와 모멸을 받으며 살아온 성매매된 여성의 치유와 사회적 복귀를 위해 소리 없이 일해 온 13개 현장단체들의 협의체로, 통계조차 없고 사회적 무관심에 방치된 성매매된 여성의 실태와 인권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었으며 나아가 그들의 인권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소외된 여성을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치유해 온 단체입니다. 특히 군산에서 감금되어 노예생활을 하던 성매매된 여성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화재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등 여성인권이 존중되며 또한 성매매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흔들림없이 실천하고 있기에 제14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2002년 3월 10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8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오경숙 이강실 정현백

■ 활동 내용

매매춘근절을위한한소리회(이하 한소리회)는 한국사회의 성매매 근절, 성매매 여성들의 치유와 피해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민간 복지시설의 연합체이다.

활동 초기에는 매춘여성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매춘지역의 조사, 매춘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작업과 함께 각 센터의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회원단체인 다비타의 집 회원이었던 윤금이씨가 1992년 10월 미군에 의해 살해당하자 한목소리로 이를 폭로함으로써 미군 기지촌 여성의 인권문제를 사회문제로 제기하였다. 1995년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사건, 2002년 군산 개북동 화재참사사건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 대안마련을 요구하는 활동, 유가족 지원 활동 등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였다.



수상자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한소리회는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여성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성매매 문제, 외국인 성매매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성매매문제와 관련한 다수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그외 국내외의 여성단체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연대사업,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론확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기 간행물로 '한소리회'를 발간하고 있다.

성매매 현장에 대한 신뢰할만한 실태조사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강고하게 군림하는 성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소리회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여성인권유린 실태가 조금씩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 연혁

- 1986 10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에 대한 상담, 쉼터 마련, 의료진료 등을 고민하는 단체, 개인의 연대모임으로 활동을 시작
- 1987 3 성매매여성들의 한이 담긴 목소리,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라는 뜻으로 회의 명칭을 한소리회로 결정
- 1992 9 전국 성매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 1992 10 미군에 의한 윤금이씨(한소리회 다비타의 집 회원이었음) 피살사건 폭로
- 1995 8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며 해결 및 대안 촉구대회 개최
- 1996 4 매춘여성의 인권문제와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토론회
- 1996 7 퇴폐·성매매의 온상 터키탕 규제완화 반대집회
- 1997 11 성매매여성과 가출청소년을 위한 야간상담전화 개설
- 1998 5 정기간행물 '한소리회' 창간
- 1998 11 외국인 성매매여성 대책위원회 결성 및 성매매문제 연구위원회 연속 세미나
- 1999 3 성매매여성과 가출청소년의 심리치유를 위한 집단상담훈련 및 집단상담캠프 실시
- 1999 4 '에이즈예방 및 상담정보 제공 캠페인'(용산사창가·송탄클럽가)
- 1999 5 'Asian-Pacific Regional Workshop on trafficking in Women' 한국측 발제(서울)
- 1999 12 성매매예방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영상물 '성매매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공개상영회
- 2000 9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대책위원회 활동
- 2000 11 10대여성의 성산업유입 예방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공개상영
- 2002 1 군산 개북동 화재참사 대책위원회 활동
- 3~12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성매매방지법안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 활동

■ 회원단체

막달레나의집, 쏘나의집, 정다운집, 다비타의집, 두레방, 새움터,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여성자립지킴이공동체, 여성이 야기공동체, 다일공동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시민연대, 부산여성문화인권센터 13개 단체 및 개인 회원

디딤돌

올해의 여성권의 디딤돌 & 걸림돌

■ 여성장애인 성폭력 재판에서 장애특성이 고려된 판결을 내린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

서울 살해동 정신지체 청소년 이아(16세, 정신지체 2급)의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합소장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2001년 9월 15일, 주판 이모(52세)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이같은 판결은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장애인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물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웠던 선례를 깬다는 점에서, 여성장애인 인권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경직된 사법체제를 깨고, 비공개심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심리적 안정 조성 등을 통해 정신지체 청소년인 피해자의 양의 장애가 충분히 이해되고 배려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합소심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전향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의 판결은 여성장애인 나아가 여성의 인권 향상에 큰 단추를 하나를 놓았다고 할 것이다.



■ 보수적 법조계에서 소신껏 호주제 위험심판제 청결정을 내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안성희 판사, 북부지원 양승태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안성희 판사와 북부지원 양승태 판사는 지난 2001년 9월 27일과 28일 각각 남상우 전 호주승계 등을 규정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험소지가 있다며 위험심판을 제정 결정을 내려 호주제 위험심판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안성희, 양승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행 호주제가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일률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순위를 매겨 평등한 공동체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험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안성희, 양승태 판사의 결정은 현행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양성의 평등이 민법 제 11조 1항, 2항과 법 앞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 36조 1항)에 근거한



선진적인 결정으로 호주제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알렸다.

■ 58세 여성정년차별 철폐하고 재고용 장려한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경북대 미화원 분회'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4~50대 중·장년 여성노동자 미화원을 모 구성된 분회이다. 2001년 7월 48명이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당시 기본급은 30만원이었고, 청년은 남자가 63세인 데 비해 여자는 58세였다. 이후 노조와의 공작을 노조반입이 계속되다가 급기야 2000년 8월 18일 2명의 조합원이 해고통보를 받게 되고, 조합원들은 8월 20일 경북대미화원분회를 결성, 두 달간의 치밀한 출근투쟁과 각종 집회, 부당해고 철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였다. 법적 대응으로는 최저임금 고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정년차별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 2001년 10월 28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고 11월 1일자로 해고조합원이 원직복직을 정취하였다. 11월 12일에는 남녀 정년차별에 대한 시정권고서 내려왔으며, 그 이후 전원 재계약과 정년차별 시정권고 이행을 요구하는 선전전과 집회 등을 지속하여, 현재 일부는 경북대 공과대학에 직고용을 철회하였고, 일부는 용역회사로 재계약이 되는 파지를 올렸다.



현재 남녀 정년차별은 시정되어 있으며, 임금과 상여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교섭이 진행중이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조합원은 현재 62명으로 늘어났다.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에 희망을 찾아나가는 지난하지만 눈물겨운 보람찬 투쟁이었다.

■ 남성중심적 노동조합 운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대의원 50% 여성할당제 통과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 관리직인 교장·교감의 여성대표성은 겨우 7% 내외이며, 여성조합원이 60%인 노동조합의 간부 중 여성 비율도 6~7%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전교조는 대의원 50% 여성할당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조합 내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이 동등한 주제로 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전교조의 대의원 50%여성할당제는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노조 민주주의, 젠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남성중심의 조직문

화를 여성친화적, 가족친화적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할당제를 통해 여성 간부들이 여타의 여성문제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교육 현장에서 양성 평등한 교육이 확산될 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교조의 여성할당제는 다른 노동조합에도 영향을 미쳐 조합 내 여성할당제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향후 기업과 정부, 제도 정치권의 여성할당제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매매춘여인숙 소유 김영세충북교육감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 집행위원장 진옥경씨

2000년 9월 충북지역 교육의 수장인 김영세 교육감이 10년 동안이나 매매춘 여인숙을 소유하고 그 임대수익을 치부한 경악을 할 일이 목로되었다. 누구보다도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딸과 같은 어린 여성들을 고용해서 매매춘을 해온 여인숙을 소유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나와 온갖 뇌물수수,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북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주여성회와 함께 지역의 여성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김영세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때 '매매춘 여인숙 소유 김영세 교육감 퇴진운동'에 제일 앞장을 섰던 분이 바로 참교육학부모회 진옥경 회장이다. 진옥경 회장은 그 후로 거의 모든 일을 전담하고 김영세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불법적인 매매춘 여인숙을 소유했다는 것을 적대적으로 알렸으므로 퇴진의 여풍을 조성하였고,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1상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학부로서 여성으로서 매매춘 여인숙을 소유하고 임대수익을 챙겨온 그 부패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다는 것을 폭로할 수 없다는 진옥경 회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올해의 여성권의 디딤돌 & 걸림돌

걸림돌

■ 도지사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단체장을 성추행한 제주도지사

제주도지사는 명단중이던 여성단체장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슴을 만지고, 거부하고 귀찮아 나오는게도 따라 나오며 뒤에서 깨우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는커녕, 배후세력의 사주를 받은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죄행을 이용하여 다음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도의당이라고 부패하고 이것도 모자라 집무실에서 여성단체장을 성추행함으로써, 제주지역 여성을 우롱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다.



■ 군산시 화재참사사건에 책임을 저야 하는 군산 경찰서장과 군산시장

군산시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5명의 여성이 희생된 이후, 재발방지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29일 계북동 화재참사가 발생하자 불과 3시간여만에 소방서의 공식발표도 없이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화재가 난 업소는 소방시설이나 비상구가 있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발표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기도하였다. 또한 군산경찰서는 화재참사를 예방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파출소에조차 화재업소에 대하여 경계기척이 없고, 감당에 의한 노역매춘을 방치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2000년 대명동 참사시 유체의혹을 받았던 자를 수사함에 합류시키는 등 철저한 수사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14명의 희생자를 낸 군산시의 화재참사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고통과 폭력으로 부를 착취한 성산업 업주와 이를 방치하고 대가성 이익을 얻고자 하는 권력기관과의 유착관계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이다.

■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이라며 성매매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황성주 판사

대전지역에서 불법적인 매춘행위를 통해 1억 2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스포츠 마사지 업주를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이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윤락거나 불법행위를 통해 성매매가 사실상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업주가 서울에 살면서 사실상 영입에 간여하지 않고 이미금 내려와 수급만 한 정도 청탁했다고 밝히, 군산 가북동 화재 참사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허가상의 업주가 아닌 실업적인 업주에 의해 영입이 이루어진다는 성산업 현실조차 외면하는 경향을 내었다. 이러한 황성주 판사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들의 왜곡된 성의식과 잘못된 문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여성인권을 후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2001년 8월 21일 리베라 CC당시 관4CC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외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2001년 9월 4일 한화프리카 CC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폐기하고 사업주 측에서 낸 항구소송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마저도 부인하여 이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판결이었다.

■ MD강행시도,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부시 미국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집권 이래 북한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피사할 위협을 명분으로 MD, TMXX(미사일방어체계) 정책을 강행하는 등 새로운 군비경쟁과 함께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해왔다. 그리고 9·11 테러사태 이후에는 '테러척결'이라는 명분아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을 시작으로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특정집단을 악마화하며, 군사패권적 세계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남북정상회담 나 6·15 선언까지 합의하였지만 부시행정부의 초강경 발언과 대외정책으로 인해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긴장이 감돌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선과 악, 아군과 적군으로 세계를 이원적으로 가르치고 군사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군사주의의 심대한 피해를 입어온 한국여성들을 더욱 위협하고 있고,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출연진 소개

함께 하는 사람들

■ 축하무대

- 전국여성노조 '경북대 미화원 분회' 1
- 부산성폭력상담소 '파란예고! 우파워' 2
- 김수열 줄넘기아카데미 '음악줄넘기 시범단' 3
- 안양부흥중학교 '여학생축구단' 4
- 청소년 댄스그룹 '핑키' 5
- 라틴댄스 주부동아리 '웃음으로' 6
- 대전여민회 '말·달·여' 7
- 한국여성민우회 풍물패 '단비' 8



1	2	3	4
5	6	7	8

■ 기념식

■ 권해효

다수의 연극, 영화, 드라마를 통해 실력있는 연기와 정감있는 캐릭터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이다. 연극 '러브레터', '날보러와요' 등에서 실력있는 연기자로 기량을 보였다. 최근에는 드라마 '겨울연가'와 '사랑을 예약하세요'에 출연하며 비중있는 조연으로서 극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점이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사회자로 발탁된 주요 배경이다.



■ 안혜경

열정적인 음악활동의 길 위에서 항상 민중과 여성들과 함께 하고있는 돌직한 우리들의 언니이며, 한국의 페미니스트 가수로 우뚝 선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성계에서 주로 불리워지는 여성노래인 '믿음의언덕', '힘모아 힘을 줘', '일이 필요해'의 원작자이기도 하다. 2002년,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3집 음반을 오랜만에 내놓으며 3월27일~30일 대학로 라이브극장에서 7년만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함께 하는 사람들

출연진 소개

■ 예술집단 오름

여성주의 시각으로 연극, 음악, 춤, 굿 등의 창작공연활동과 문화행사를 기획, 연출하는 여성 예술인의 모임이다.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남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평등한 문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97년 1월 창단하여 전국을 누비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최광기

사회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민중단체, 노동조합, 대학 등에서 행사의 진행을 위한 사회자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대중들과 함께하는 힘찬 진행을 맡아온 전문사회자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따지면 사회경력 20년이 넘는다는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특유의 재치와 유머, 힘이 넘치는 선동 등 사회자이면서 선동가, 손색없는 노래선창까지 그야말로 다재다능의 만능 재간꾼이다.



■ 함께 하는 사람들

- 연출 | 이해란 (예술집단 오름 대표)
- 기획 | 황금명륜(여성연합 기획국장), 채리미영(여성연합 기획총무간사)
- 미술자문 | 홍현숙 (작가)
- 음악자문 | 이원경(작곡가)
- 디자인·편집 | 큰사람기획
- 무대·음향 | 은백음향

여성노래

'내사랑 여성연합'

이혜란 글 이원정 곡

수 천 년 이 어 온 성 찰 역 사를 되 고 여 성
의 이 름 으 로 새 역 사 만 들어 가 자 나 하 나
의 힘 비 묵약 하 고 보 잘 것 없 - 어 도 여 성
연 합 - 우 리 들 의 단 결 은 위 대 하 - 리 라 그 어 띵
차 별 과 그 어 띵 억 압 도 우 리 갈 길 막 을 수 없 으 러 가 장
에 서 - 일 터 에 서 거 리 에 서 들 러 오 는 힘 찬 함 성 들
폭 력 과 민 끝 다 날 려 버 리 고 두 주 먹 불 끈 쥐 며 내 딛 는 걸 음 가
자 - 가 자 자 유 평 등 평 화 를 향 해 가 자 가
자 - 가 자 여 성 해 방 내 일 을 향 해 가 자 가 자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 특별 결의문

특별 결의문

■ 성산업 근절, 성매매된 여성의 인권보장,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라!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북동에서 감금상태로 노예매춘을 강요당하던 여성들이 화재로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성매매된 여성에 대한 실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성적 인신매매로 인한 불법 감금, 강간, 폭력, 경제적 착취 등 이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성을 파는 행위'를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허용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 성산업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200만을 넘는다고 한다. 성매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성산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도록 규제한다면 성매매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 성산업을 규제하고 성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 성매매방지법에 담아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매매된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비범죄화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를 처벌하고 성산업을 통한 불법 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해야 한다.
- 성매매된 피해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 피해여성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긴급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법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 선불금, 대위변제금, 기타 명목으로 만들어진 '취업각서', '현금보관각서' 등 현대판 노예문서는 종종 피해자인 성매매된 여성을 사기범으로 둔갑시키는 증거가 되므로 성매매를 둘러싸고 만들어진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불법원인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
- 국제적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 성산업 종사자를 비호하는 권력과의 유착, 폭력조직을 고소, 고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신고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조직적 범죄행위를 엄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단속책임자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예유린하는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2002년 3월 10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18 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단체

준비위원회 참가단체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 02-2273-9535

여성연합 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 031-233-8663

경남여성단체연합 | 055-282-9603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062-225-6078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053-421-6758

부산여성단체연합 | 051-817-4344

전북여성단체연합 | 063-287-3459

여성연합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 055-585-9603

기독교민회 | 02-2265-7957

대구여성회 | 053-421-6758

대전여민회 | 042-257-3534

부산성폭력상담소 | 051-513-2475

부산여성사회교육원 | 051-802-6083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 02-747-2442

새움터 | 031-867-4655

수원여성회 | 031-241-7530

안양여성회 | 031-458-3050

여성사회교육원 | 02-2278-7705

울산여성회 | 052-266-715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02-529-6349

제주여민회 | 064-756-7261

충북여성민우회 | 043-252-812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02-2264-8649

포항여성회 | 054-275-7436

한국보육교사회 | 02-2275-8505

한국성폭력상담소 | 02-576-5513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02-365-8763

광주여성노동자회 | 062-381-3029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055-261-5362

부산여성회 | 051-852-6647

부천여성노동자회 | 032-668-1011

서울여성노동자회 | 02-867-0516

안산여성노동자회 | 031-495-6844

인천여성노동자회 | 032-524-8830

전북여성노동자회 | 063-245-1633

한국여성민우회 | 02-737-5763

고양여성민우회 | 031-919-1195

광주여성민우회 | 062-225-0383

군포여성민우회 | 031-396-0201

김포여성민우회 | 031-986-6007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02-2643-1253

서울남부지역모임 | 02-459-3519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02-3492-7140

원주여성민우회 | 033-732-4116

인천여성민우회 | 032-525-2219

전주여성민우회 | 055-743-0410

춘천여성민우회 | 033-255-5557

한국여성연구소 | 02-2273-620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02-2269-2962

서울여성의전화 | 02-2272-2161

준비위원회 참가단체 연락처



서울강서양천지회		02-2605-8455	전북여성장애인연대		063-287-8522
광주여성의전화		062-363-7739	충북여성장애인연대		043-262-3805
대구여성의전화		053-475-8086	양천구여성장애인회		02-2605-8728
부산여성의전화		051-817-4321	경남여성장애인연대(준)		055-231-5014
울산여성의전화		052-244-1555	인천여성장애인연대(준)		032-763-8271
인천여성의전화		032-527-0090	충남여성장애인연대(준)		041-576-9184
강화여성의전화		032-934-1903	시각장애인여성회		02-564-2444
강릉여성의전화		033-643-1985	농아인여성회		02-714-3775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빛장을어는사람들		02-521-5364
성남여성의전화		031-751-2050	한국여신학자협의회		02-2275-7754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80	함께하는주부모임		053-425-7701
시흥여성의전화		031-312-4700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708-5894
안양여성의전화		031-458-4385	여성 · 시민 · 문화단체		
김해여성의전화		055-327-644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2-756-1400
창원여성의전화		055-264-8322	녹색연합		02-747-8500
군산여성의전화		063-445-2286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02-324-7486
영광여성의전화		061-353-4994	동성애자인권연대		02-2235-7422
익산여성의전화		063-857-8163	문화개혁시민연대		02-773-7707
전주여성의전화		063-287-7324	매매춘근절을위한한소리회		02-3147-1505
천안여성의전화		041-561-032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
청주여성의전화		043-252-0966	서울YMCA		02-732-2941
부천여성의전화		032-613-4643	신나는문화공동체 자청비		02-2269-4975
진해여성의전화		055-546-100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7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전국여성노동조합		02-362-5305
목포여성의전화		061-283-4551	참여연대		02-723-5300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9935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02-739-6851
부산여성장애인연대		051-517-9669	한민족평화어머니회		02-577-0601
대구여성장애인연대		053-637-6058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02-577-0601
광주여성장애인연대		062-366-2305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국민우선정치



“국민이 중심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치

한나라당이 실천하는 국민우선정치입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먼저 알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국민우선정치는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국민우선, 경제우선 한나라당 위원장 김성환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한나라'는 우리 함께 '한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한나라'는 '한'과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은 '한글'과 '한글'을 뜻하는 '한글'과 '한글'을 뜻하는 '한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할 4호선 대공원(서울랜드역에서 하차)
 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도 함께 즐기세요

바람 불어오는 계절



신기하고 웃미로운 전시의 세계

→ 연인들이 서울랜드에 갔다면 화이트맨형 호프병을 드세요.

151796 臺灣經濟發展與國際化

— 새해를 맞아 미국보는 곤충들의 세계, 초현물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 잘못된 이끌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누구나 참여해서 노래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공연대회

— 서울랜드 파스코프 아름, 다문화와 무용단
재능기가 펼쳐지는 뮤직댄스 파티

— 서울랜드 파스칼프 아롱, 다종마와 무용단
캐릭터가 뽐내는 뮤직댄스 파티

자유이용권 50%특별할인 (월별 1만명까지)

— 졸업생 합격은 물론 졸업 입학 증명 서류를 제시하시면
과제이외에 합인 3시간제

15. <http://www.fishbase.org>

-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세계의 문화와 문명

- 역사적인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드라마틱한 장미에서 배설



OPEN 3월 1일

장미의 언덕

Rose Hill GALBI HOUSE

예약:(02)504-5311~2



51034

— 1001504 — 2011

oulland.co.kr

www.seoul.go.kr

우린 믿어요 - OK 민주당

믿음직한 친구 - 새천년민주당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한 외환위기!
다시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
그 길을 같이 갈 영원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아이를 가르치는 일만큼은 프로가 해야합니다

누군가 발견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잠재력은 잠재력으로만 그치고 맙니다

아이들 속에 숨겨진 무한한 힘, 프로의 눈에는 보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일만큼은 프로에게 맡기십시오

교육의 프로 - 대교농학교



www.daekyo.co.kr

농놀이 는 (주)대교의
등록상표입니다